

이기는 삶

입게 보면 입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올랐다. 왕이 되고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지당하십니까.” “망극하옵나이다.”로 일관하니 도대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었다. 유일하게 자신에게 쓴 소리를 해주는 무학대사를 만나 태조는 장난을 걸었다. “대사는 꼭 돼지같이 생겼소.” 그러자 무학대사가 대답했다. “대왕의 얼굴은 부처님 같으십니다.” 무학대사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지라 태조 이성계는 대사에게 따졌다. “나는 농담을 하는데 아부를 하면 재미가 없잖소.” 그러자 무학대사가 말했다. “아부가 아니옵시다.” “아니 아부가 아니라니, 금방 나더러 부처님 얼굴 같다고 치켜세우지 않았소.”라고 태조가 반문하자. “아니지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곱게 보면 꽃이요 입게 보면 가시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보는 것마다 못마땅하여 남을 씹는 말

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의 흉을 볼 때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시누이를 미워하는 임신부가 딸을 낳았는데 시누이를 꼭 빼 닮았더라고 한다. 시누이가 밋다보니 계속 시누이를 생각하며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뱃속의 아이가 시누이를 닮은 것이다.

북한 입더라도 인내와 지혜로 풀자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입게 보면 미운 것만 하고 곱게 보면 하는 일이 다 좋게 보인다. 특히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렇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허다(許多)하다. 들어 보면 각자가 일리가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이 바로 그렇다. 한민족이라는 개념에서는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보기 좋은 지는 몰라도 북한의 제략에 철저히 놀

아난다는 지적도 분명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세대들의 견해는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굳이 일방적으로 우리 것을 퍼주면서 하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과의 약속을 지킨 적이 있었던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일방적으로 대화단절에 들어간다. 더구나 지금 북한의 행위는 경제적인 제재(制裁)와 미국의 공격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남한을 방해하기로 삼아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알뜰한 술책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인지 북한 미녀 응원단의 몸짓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 받기 위한 발버둥에 다른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북핵문제의 해결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Microbes breed in rotten Blood 세균은 썩은 피에서 발생된다

인간은 인간의 신체 밖에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없다. 신체 밖의 세균들은 신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 인간의 몸 상태는 주변 환경의 상태와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온도, 염분, 화학적인 구성요소들, 삶의 조건들 등등.

▶ Man cannot be infected by microbes outside the human body. The microbes outside the body cannot come and live in the body. The state of the human body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nvironment. For example, temperature, saltiness, chemical components, living conditions and so on.

그러므로, 민물고기가 염분이 있는 바다에서 살 수 없듯이, 신체 밖의 세균들은 몸 안에서 살 수가 없다.

▶ Therefore, microbes outside the human body cannot live in it, as freshwater fish cannot live in the salty sea.

그러나, 심지어 의학 의사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은 오염된 조건에서 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믿는다. 이것은 현대 의학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마치 어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 But, most people, including even medical doctors, believe that men are infected with microbes or viruses living in cesspool-like conditions. This reveals where modern medical science lies. It looks as if only darkness is ruling all over the world.

사실, 피가 욕심 때문에 썩을 때 세균은 썩은 피에서 발생되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균이 인간의 장기를 갉아먹는다.

▶ In fact, when the blood has decayed a lot owing to desire, microbes breed in the rotten blood, and these breeding microbes gnaw at the organs of the human body.*

by Alice

‘정인원(절)’을 다녀와서

과학조차 규명 못하는 불가사의한 목(木)꽃, 우담바라

햇살은 화창하게 비추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초겨울 아침에 ‘우담바라’를 연구하는 이내섭 장로님이 열차로 대구역에 도착했다. 장로님은 나와 함께 ‘우담화’가 목불에 많이 피어났다는 창녕(昌寧) 부곡(富谷)의 ‘정인원’이란 절에 방문(訪問)할 일정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터미널로 갔다. 창녕행 버스를 끊어놓고, 정류장 옆 식당에서 따끈한 순두부 찌개로 늦은 아침을 먹었다.

창녕(昌寧)까지 한 시간 남짓 걸렸던 것 같다. 목적지에 내려 ‘정인원’이 어디인지 몰라서 택시를 잡기로 했다. 사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정인원 절’은 온천(溫泉)으로 유명한 부곡(富谷)에 위치하고 있었다. 택시 기사님도 정확한 위치는 몰라서 ‘정인원 절’ 근처에서 다른 기사님께 물어 보았다. 조금 가다보니 ‘정인원 간판’이 보였다.

불상마다 솜털같은 우담바라
일반상가건물 2층과 3층을 쓰고 있는 ‘정인원’에 도착했다. 2층에 올라가다가 삭발을 안 하신 여자 보살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 절을 세우신 바로 ‘정인원 원장님’이었다. 3층 손님맞이 방에 들어서자 스님 한 분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겸손하고 불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이였다.

스님의 인도로 우리는 ‘우담화’가 핀 목각불상을 보러 불당(佛堂)으로 가 보았다. 목불이 안치된 유리 상자가 여러 개 있었는데 불상(佛像)마다 몸에 솜털 같은 ‘우담화(優曇華)’ 또는 ‘우담바라’가 칭칭 감겨져 있었다(3면 2면 참조). 사진을 찍어 확대해보니 솜털 같은 ‘오색빛깔’을 찬란하게 띠고 있었다. 이 절에 ‘정인원절’에 방문(訪問)한 학자들도 ‘우담화’를 떼어가

사를 해보았는데, 이 세상에는 이제껏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소재란다.

국립경상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 <곰팡이 분자유전자연구실>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다. “일단 곰팡이 같진 않습니다. 모양이 엄청 독특하네요. 곰팡이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격벽이 있는데 이걸 격벽이 안 보입니다. 실처럼 쪽 연결되어 있네요, 이전 보지 못한 구조예요. 실험을 해서 직접적으로 DNA 추출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DNA를 발견 못 했어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을 포함한 살아 있는 생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노현수 교수 /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목불상에 핀 흰 꽃이 DNA를 발견할 수 없는 까닭에 생명체가 아니라면, 거짓으로 조작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기물도 아니고 무기물도 아닌 것이

그래서 그 목(木)꽃이 유리로 만든 섬유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고 ‘유리섬유업체’에 의뢰하였다. 유리 섬유에 열을 가할 경우, 섬유가 다시 유리 성질을 가지며 딱딱한 물질로 변하는데 반해, 목불상에서 채취한 흰 꽃은 흔적도 없이 연소되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불상의 흰 꽃은 유기물에 가깝다는 것이다.

목불상의 흰꽃이 DNA를 발견할 수 없어서 생명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흔적도 없이 연소되는 것으로 보아 유기체라는 유형무형(有形無形)의 결과가 그야말로 반아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공즉시색(色即空空即是色)’이라

▶3면 하단으로

▶1면 ‘손도 안 대고 정신병 고친 구세주’에서

정신인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구세주께서 손 하나 대지 않고 정신병을 고친 것이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구세주는 만병을 고치는 대의왕(大醫王)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세주께서 손도 안 대고 병을 고친 일은 비밀비재하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 위암 환자, 간암 환자, 심장병 환

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병이 싹 나왔다. 어떤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지 3일, 일주일, 한 달, 석 달, 일 년 만에 낫기도 한다. 무슨 병이든 3년 만 나오면 병이 낫는다. 병이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 그 죄만 없으면 낫게 되어 있다. 낙심 말고 견디고 이기면 꼭 낫게 되어 있다.*

김종만 승사

하나님의 지혜보다 마귀의 지혜가 더 높았다

천국의 성립조건, 삼위일체 하나님

천국의 문이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 예수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은 선악과가 되는 마귀 영에게 점령당함으로써 에덴동산(천국)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 그리고 해와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곳이 에덴동산이요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에 갔다는 말은 허황된 말임을 알 수 있다. 예수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사로잡힌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구출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과 창세기서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의 짝을 맞추어보면, 6일 즉 하루를 천 년으로 계산하면 6천 년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세속에서 돈 버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숙원문제가 잃어버린 에덴동산(천국)을 회복하는 일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성립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구약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 신약성경에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예수의 설교내용 가운데, 창세기서에 나오는 에덴동산에 계셨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존재했다는 말이 전혀 없다. 이것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는 하나님만이 살 수 있다”는 초보지식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추종하는 목회자 이하 신자들조차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천국)에서 살았다는 창세기 말씀을 눈뜬 장님처럼 보지 못하고 반대로 마귀의 주장을 받아 적은 아담과 해와가 흠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사탕 발린 말에만 현혹되어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가리”는 마귀의 지뢰를 밟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죽을 때도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죽는다.

인간 각자의 마음의 주인은 선악과
만약 예수가 아담과 해와의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하나님이었고,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자마자 아담 하나님은 남자 사람이 되었고, 해와 하나님이 여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벌써 오랜 전에 전부 원래 하나님의 신분을 도로 찾아 하나님들로만 가득 찬 지상천국을 이루어 전쟁과 고통이 없는 영원무궁토록 희락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는 구세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실낙원(에덴동산이 무너짐) 이후 최소 6천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 보시고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한다고 숨겨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세주만 간단히 말해서 마귀한테 포로가 된 하나님 상태에서 6천 년 동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 마침내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마귀 옥에서 석방되어 마귀가 앉았던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앉은 상태의 의인(義人)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재 인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임에는 분명한데,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다. 인간 몸속의 생명이 곧 하나님이요 생명이 양심의 하나님 영이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모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각자의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주체의식인데, 이 ‘나’라는 주체의식의 실체가 곧 마귀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상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예컨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가운데,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 자신과 싸워 극기(克己)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제일 높은 시상대에 오른다. 구세주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비밀을 깨내어 알기까지 죽음의 경지를 수없이 넘어야 했으며, 그다음에 ‘나’라는 것이 마귀임을

안 이후에는 철저한 반대생활로 ‘나’라는 마귀를 짓겨 비리비리 말라 비틀어져 죽을 때까지 연단의 연단을 거듭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초반에 더딘 이유

구세주를 또 다른 말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긴자(Victor)’라고 한다. 진정한 이긴자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神)이 되는 ‘나’라는 마귀를 이긴 자를 가리킨 것이다. 이긴자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다!”고 하였을 때, 이 말씀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먼저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는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마귀한테 점령당한 사건(선악과 사건) 자체에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마귀의 지혜가 더 높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로잡은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으로서 하나님의 몸을 종처럼 부려먹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만큼 욕망을 누리는 동시에 인간 자신의 몸은 늙고 병들어가야 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원래 인간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해

와가 선악과라는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해와의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자리 잡고 주관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긴자 구세주께서 출현해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마귀를 감로이 슬성신의 살마광선으로 어느 정도 죽여주시니 인간 속에 갇혀 있는 양심 즉 하나님의 영이 힘을 얻어 마귀 옥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가 단번에 ‘나’라는 마귀를 박살내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그것은 아시하시피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가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기에 이슬성령의 무기로 마귀를 박살시키려고 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안고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속의 하나님을 다치지 않고 ‘나’라는 마귀만 죽이려고 하니가 초반에는 더디고 어렵게 진행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천지개벽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매일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이슬은혜를 받아 점진적으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세포를 축적하는 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빅테신 기자